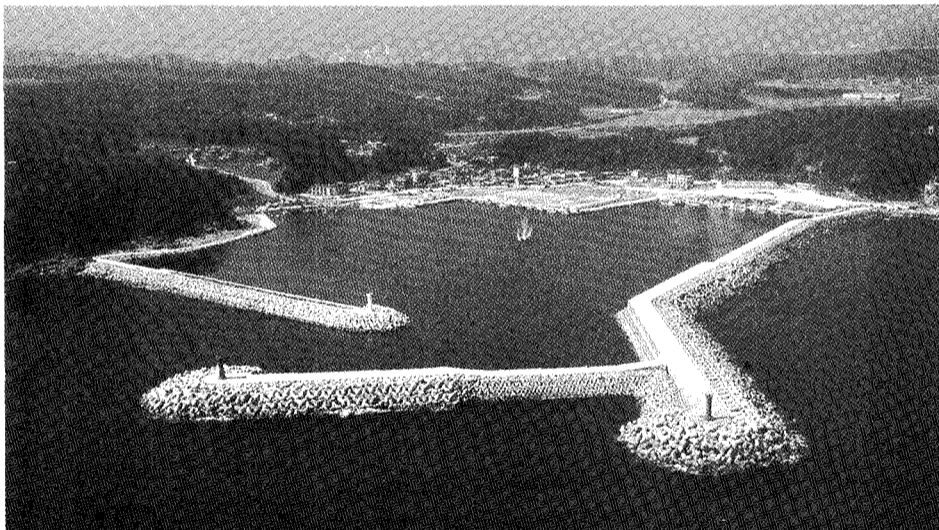


내년도 국가어항에 1,735억원 투자

기존 투자항 조기완공, 어촌관광 활성화에 주력키로



2005 년도 국가어항 사업 투자 예산은 전년 예산에 대비 5.5%가 증가한 1,735억원으로 90억원이 늘 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5년에는 기존 투자항의 조기완공을 목표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집중투자에 주력하고 활용도가 높은 어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 위주의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외 수산업 여건 악화에 적극 대처하고 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립한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에 의해 관광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어항을 개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속 투자항 26개항에

1,057억원을 투입하고 기본시설 완공항 중 시설확충 및 정비와 유지보강이 필요한 27개항에 485억원,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에 대한 제 I 모델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1개항에 50억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비 등 부대비에 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계속투자항 중 전남 득암항 등 6개항에 마감소요액 전액(206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하고, 나머지 항인 인천 선진포항 등 20개항에는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완공계획을 수립하여 항별 특성을 감안한 적정소요액(8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위해 신규착수는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말 6개항 준공시 국가어항 완공

항수는 75개에서 81개로 증가하여 어선안 전수용율 58%, 국가어항 완공율 77%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 조성 사업으로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복합 공간조성사업 1개소에 시설비 50억원 및 실시설계비 3억원과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기능종합어항에 기본설계비 20억원(4개소) 등 73억원의 예산을 반영,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기능어항은 2004년말 현재 대표항을 개발중에 있고 격포항 기본설계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2005년에는 국동항 등 4개항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항공사 조기발주를 통한 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효과를 거양하고 태풍기 이전 주요공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설비 기준 총 53개항 1,592억원 중 1/4분기에 41개항, 1,310억원(82%)을 투입하고 2/4분기중에 잔여 12개항 282억원(18%)을 2004년 상반기중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어항은 441억원을 투자하여 7개항을 완공할 예정으로 05년부터는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지방비로 20% 부담토록 함으로써 지방어항의 개발주체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관련 표 5면>